

『동경대전』 간행터의 기념시설 활용 및 활성화 방안*

엄찬호**

〈목 차〉

머리말

I. 동경대전 간행터의 비정

II. 동경대전 간행터 정비 현황

III. 동경대전 간행터 활용 및 활성화 방안

맺음말

〈국문초록〉

동학은 한국 근대사의 전환점이 되는 우리 민족의 정신이다. 우리는 이러한 정신을 오늘날 어떻게 구현하고 계승해 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하며 이러한 고민이 담긴 선양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또한 그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사적지들을 전략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이 논문은 2024년 8월 19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인제군이 공동 주최한 2024 인제 동학사상과 동경대전 학술대회 “인제, 동학정신에서 동학농민혁명으로”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강원대학교 강사

강원도 인제군 남면 갑둔리에서 『동경대전』을 간행한 역사적 사실은 당시 동학이 한 교단으로 정립될 수 있었던 토대를 마련한 측면과 아울러, 한국 근대사의 한 부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이었다. 그러므로 역사문화적으로 의미있고 중요한 『동경대전』 간행터의 활용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간행터 활용방안으로서는 첫째, 역사문화유산 탐방시설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육시설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 문화콘텐츠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간행터 기념시설 활성화 방안으로는 첫째, 경전 간행터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둘째, 학생들 수업부교재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동경대전』 간행 기념사업 추진이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동학유적지 정비가 필요하다.

주제어 : 동학, 동경대전, 최시형, 인제군, 갑둔리

머리말

동학은 조선말 근대 이행기에 보국안민(輔國安民)과 광제창생(廣濟蒼生)을 기치로 내건 민족적이고 사회적인 종교로 ‘동학’이란 교조 최제우가 서학(西學)의 전래에 대항하여 동방인 우리나라의 학문을 전한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동학의 창시자인 최제우는 천지인 합일 사상과 인간의 평등사상을 바탕으로, 부패한 조선 사회를 개혁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했다. 곧 동학의 사상은 신분 질서를 부정하고, 인간의 평등을 주장하며, 개혁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하여 조선 후기 사회의 변화를 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최제우의 시천주(侍天主)는 누구나 한울님을 모시는 존재로 사람은 모두 각각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근대의 개인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근대 민족국가 형성의 요소인 민족의 의미를 서구와 일본에 대한 적대감 표출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최제우는 보국안민을 통해 무극대도의 후천개벽 세상으로의 이행을

추구함으로써 근대 사회변혁을 이루고자 하였다.¹⁾

그러므로 동학은 한국 근대사의 전환점이 되는 우리 민족의 정신이다. 우리는 이러한 정신을 오늘날 어떻게 구현하고 계승해 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하며 이러한 고민이 담긴 선양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또한 그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사적지들을 전략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동학은 최제우의 순도 이후 관의 탄압을 피해 강원도로 숨어들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더구나 1880년 경전의 간행은 동학이 종교로서의 체계를 구축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의미가 있다. 동학은 188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전 간행을 통하여 확산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최초의 경전인 『동경대전』을 간행하게 됨으로써 동학은 하나의 가르침, 즉 한 종교로서 더욱 분명한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것은 동학교도의 양적인 팽창뿐만 아니라 동학 교리의 체계화를 촉진한 계기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한국 근대사의 중요한 획을 긋는 동학농민혁명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었던 동학의 저력은 『동경대전』 간행을 기반으로 한 것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다. 강원도 인제군 갑둔리에서 『동경대전』 간행을 한 역사적 사실은 당시 동학이 한 교단으로 정립될 수 있었던 토대를 마련한 측면과 아울러, 한국 근대사의 한 부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이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제군 갑둔리의 『동경대전』 간행터는 2016년 강원도기념물 제89호로 지정되었다. 강원도 인제지역은 최시형의 주요 피신지역으로 동학농민혁명 이후 약 1년간 피신하였던 성황거리, 느릅정이, 최제우의 장자 세정이 피신하였다가 양양관군에게 체포되었던 기린면 귀둔리 등 천도교의 성지이며 역사문화적으로 중요한 동학의 사적

1) 박세준, 2018, 「수운 최제우의 근대성」, 『한국학논집』 73, 103쪽.

지가 분포해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인제지역에서 동학관련 문화유산을 발굴 보존 계승하는 작업은 동학의 종교적 의미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작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화유산을 과거 속에 고정하고 삶과 분리된 활용을 이어가는 것은 그 의미와 가치를 한정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다양한 해석과 방법을 통해 다수의 사람에게 공유하는 것은 문화유산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강화하고 사람들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공유란 물리적 상호 교류에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기억과 정신, 분위기 등 추상적인 형태의 감정 속에서도 공유가 이루어진다. 문화유산이 삶과 동떨어진 대상이 아닌 가까운 대상으로서 인식의 거리를 좁힐 수 있으며 물리적인 장소의 공유뿐만 아니라 생생한 감정적 공유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동경대전』 간행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러기 위한 활성화 방안은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를 찾아보고자 한다.

I. 동경대전 간행터의 비정

인제에서는 모두 세 번에 걸쳐 경전의 간행이 있었다. 그 첫번째가 1880년 김현수가(金顯洙家)에서 간행된 초간본인 경진초판이고, 두 번째는 1888년 김병내(金秉鸞)가에서 간행된 무자계춘판, 세 번째가 1890년 이명수가(李明秀家)에서 간행된 경인판 『성경대전(聖經大全)』이다.²⁾

이중 1880년에 간행된 경진판 『동경대전』은 최초의 동학 경전으로 동학이 교단 조직을 정비하고 체계를 잡는 계기가 되었다. 최시형은 관의 추적을 피하여 경상도·충청도·강원도 등 산간 지역에서 숨어 지내야

2) 裒賢淑, 2024, 「東學教 經典의 刊行과 書誌의 特徵 -『東經大全』原文의 校勘을 中心으로-」, 『한국학논집』 94, 290쪽.

하는 고초속에서도 오직 스승의 가르침을 세상에 온전하게 전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경전을 간행하였다.³⁾

최시형이 고난 속에서도 경전 간행에 착수하게 된 이유는 최제우 사후 최제우에게서 직접 도(道)를 전수 받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스스로를 수제자라고 일컬었던 데서 연유한 바가 있다. 곧 스스로 수제자라고 거짓 칭하는 자들과 최시형이 정통으로 도통을 이었다고 여기는 세력이 대립함에 따라 동학의 정통성을 재확립해야 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최시형은 동학의 정통성을 바로잡을 정경(正經)의 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동학의 내부적인 필요가 극심한 관의 탄압 속에서도 경전을 발간하여 정경을 확립하고자 한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최시형은 자칭 수제자라 칭하는 자들이 동학의 도를 왜곡하고 와전하는 것을 차단하고 경전을 간행하여 교단의 권위와 정통성을 공고히 하려고 하였다.⁴⁾

최시형은 최제우의 저작을 간행하기 위하여 1879년 11월 정선 방시학(房時學)의 집에 수단소(修單所)를 설치하고 도포덕주(道布德主)를 비롯한 담당 실무자를 나누어 정하였다. 이때 경전의 간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유사로 수정유사(修正有司)·교정유사(校正有司)·서유사(書有司)·필유사(筆有司)·지유사(紙有司)·책자유사(冊字有司)를 정하였다.⁵⁾ 미리 수단소를 마련한 것은 최제우가 남긴 시문을 모으고 행적을 정리하여 간행을 위한 정고본을 만들고 교정하는 과정이었다.⁶⁾ 초간본 『동경대전』은 최시형을 비롯한 최제우의 여러 제자들이 필사하여 지니고 있던 다양한 자료들을 모아 논의와 교감을 거쳐 간행한 경전이었다.

3) 윤석산, 2010, 「새로 발견된 목판본 『동경대전』에 관하여」, 『동학학보』 20, 203쪽.

4) 尹錫山, 1996, 『東經大全』, 동학사, 323쪽; 이호영, 2007, 동경대전의 正經과 문헌비평, 『동학학보』 11-1, 211~212쪽.

5) 「崔先生文集道源記書」, 『東學思想資料集』 壹(亞細亞文化社, 1979), 275~276쪽.

6) 염경섭, 2019, 「1880년 인제관 동경대전 편찬·간행의 재고찰」, 『건지인문학』 25, 202~203쪽.

최시형은 『동경대전』을 이미 1879년부터 침재하기 시작하였고, 여러 접과 제자들의 의견을 모아 판각소(板刻所)를 1880년 5월 초9일 각 판소를 인제 갑둔리의 김현수가에 설치하고, 인제·정선·청송·상주에서 보내 온 비용으로 11일 개간을 시작하여 6월 14일 『동경대전』 100부를 간행하였다.⁷⁾ 인제 경진판 『동경대전』 간행장소를 정하는 문제에 대하여 『도원기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아아, 선생의 문집(文集) 침재(鋟梓)를 경영한 지 한 해가 지나 이미 오래구나! 지금 경진년(庚辰年)에 나와 강시원, 전시황 및 여러 사람들이 장차 간판(刊版)을 경영하려고 발론(發論)을 하니 각 접중(接中)이 다행히도 나의 의론과 같아 각소(刻所)를 인제(麟蹄) 갑둔리(甲遁里)에 정하게 되었다.⁸⁾

이처럼 『동경대전』 간행장소는 인제 갑둔리 김현수가로 알려져 각종 동학 관련 기록과 증언 내용을 토대로 『동경대전』 간행의 업무를 보았던 각판소를 설치한 곳은 현 갑둔리 375번지에 있던 김현수 집터이고, 경전 간행작업을 한 공방장소로는 현 갑둔리 351번지 김현수의 사촌들이 살고 있던 집터로 비정하였다.

각판소터에 대한 증언은 갑둔리에 살던 김종국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는 갑둔리를 떠나기전 김현수 일명 김현규가 살던 집에 살았었는데, 그곳이 갑둔리 375번지로 현재 각판소터로 비정되어 강원도 기념물로 지정된 곳이다. 이곳은 대일항쟁기 지적도를 통해 볼 때 소유주가 김정권(金正權)으로 되어있는데, 김정권은 김현수의 아들인 김영배(金榮培)의 자(字)이다. 지적도가 만들어진 시기가 ‘대정(大正)’ 연간인 것을 감안하면 김현수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사하고 그의 아들 김영배가 모두

7) 「崔先生文集道源記書」, 『東學思想資料集』 壹(亞細亞文化社, 1979), 277~280쪽.

8) 상동

물려받아 그의 소유로 되어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곳에 김현수가 살았던 것은 틀림없으므로 『동경대전』의 간행소를 김현수의 집에 설치하였다고 한 곳이 이곳이다.

II. 동경대전 간행터 정비 현황

1. 강원도기념물 지정

1) 역사문화적 성격

『동경대전』의 간행장소를 인제 갑둔리로 정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최제우의 교난 이후 『동경대전』 간행 시기까지 동학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강원지역의 포교활동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곧 영월·정선 지역에서 시작된 강원지역 동학 포교는 이후 양양·홍천·인제로 이어지며 교세를 확장하고 교단 의식의 체계를 잡는 등 동학 교단이 조직화 된 곳이 강원지역이었던 것이다. 강원지역은 1970년대 동학이 재건의 기틀을 마련하고 충청과 호남지역으로 포교가 이어지도록 하는 가교를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⁹⁾

특히 인제는 『해월선생문집』에 따르면 최시형이 1880년 2월 하순부터 머물러 있던 곳으로 그때 김연석(金演錫)의 집에서 강시원(姜時元), 김연국(金演局)과 더불어 치성식(致誠式)을 행하였다. 이어 6월에 이르러서 최시형은 강시원, 전시봉(全時鳳), 김시명(金時明)과 더불어 김현수의 집에서 『동경대전』 100여 권을 인간하여 각처에 반포한 것이었다. 따라서 최시형은 1880년 이전 강원 지역에서 동학의 교리를 정비하고 교단의 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동경대전』을 간행하였던 것이다.¹⁰⁾

9) 성주현, 2015, 「강원도 동학 조직과 동경대전」, 『역사와 교육』 20, 254쪽.

10) 엄정섭, 2019, 「1880년 인제판 동경대전 편찬·간행의 재고찰」, 『건지인문학』 25,

최제우가 설법할 당시에 그는 그의 저술들을 제자들에게 공부하게 하여 도의 깨우침을 얻게 하였다. 따라서 최제우 순도 이후 최시형 역시 도를 전하는데 많은 한계를 느꼈을 것이고, 여러곳에서 도가 전하여지기 위해서는 경전이 필요하였다. 아울러 동학의 치제 형식을 일관성있게 유지하고 행하기 위해서도 경전은 반드시 필요하였다.

곧 1880년 『동경대전』 간행을 통하여 동학의 종교적 교리가 점차 완성되어갔다는 점에서 인제 『동경대전』 간행터의 역사적 의미가 있는것이다. 최제우의 가르침이 ‘경전’으로서 자리매김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조선조 사회를 유지해 왔던 유학, 또는 당시 새로운 세력으로 들어오고 있던 서학과는 다른 새로운 가르침으로서 동학을 분명하게 확립시키는 일이었다. 따라서 최시형이 이곳 인제 갑둔리에서 『동경대전』을 간행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은 동학이 다른 가르침과 변별될 수 있는 독자적인 가르침을 지닌 종단으로서의 면모를 공고히 한 사건이었다.

이렇듯 이곳 인제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한 동학의 교단은 이후 이러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기하여 마침내는 한국 근대사의 중요한 획을 긋는 동학농민혁명을 일으키는 주체로 자리하게 된다. 즉 강원도 인제는 어느 의미에서 동학농민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 저력을 키울 수 있었던 중요한 기틀을 마련한 지역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동경대전』 간행이 이루어진 강원도 인제군 갑둔리의 각판소는 바로 동학의 교리 정리가 이루어진 곳이라는 역사문화적 의의를 갖고 있는 공간이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인제 『동경대전』 각판소터를 2016년 9월 1일 ‘강원도기념물 제89호’로 지정심의 가결하고, 같은 해 12월 2일 도 지정문화유산으로 최종 지정고시하였다. 곧 『동경대전』 간행터에 해당하는 갑둔리 351·375번지 926㎡는 문화유산보호법 제70조, 강원도

문화유산조례 제15·1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문화유산 지정구역으로 고시되었으며, 지정구역 외곽경계 300m에 대해서는 문화유산보호법 제13조 및 강원도문화유산 보호조례 제28조에 의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고시되었다.

2) 지리적 특성

『동경대전』이 간행된 인제 갑둔리는 본래 남면 지역으로 임진왜란 때 군사들이 진을 쳤다 하여 갑둔리라 하였다 하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소치리(所峙里), 김부동(金富洞)의 일부를 병합하여 갑둔리라 하였다. 현재 갑둔리는 1996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여 2005년 완공, 2006년부터 운영에 들어간 육군과학화전투훈련장 조성으로 인하여 마을 전체가 이주 해체되어 주민이 거주하지는 않는다.

이곳 갑둔리에는 1890년 7월 최시형이 양구·간성 등을 순회하고 인제에 이르러 약 1년간 머물렀던 이명수(李明秀)의 집이 있는 성황거리(城隍巨里)가 있고, 고려시대의 석탑인 갑둔리 삼층석탑과 갑둔리오층석탑,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의 아들 마의태자 이야기가 담겨있는 김부대왕각이 있다.

갑둔리삼층석탑은 갑둔리오층석탑과 함께 1993년 강원도문화유산자료 제117호로 지정된 국가유산으로 갑둔초등학교에서 700m 정도 떨어진 곳에 놓여 있다. 지금의 자리에 일부 남아있던 기단과 갑둔초등학교에서 보관하던 탑신부로 1988년 새로이 복원해 놓았는데, 돌의 재질·양식·크기가 달라 각기 다른 석탑의 부재로 보인다. 현재 탑신부는 2층 지붕돌과 3층 몸돌이 없어진 상태이다. 각 층의 몸돌에는 기둥 모양을 새겼다. 지붕돌은 두툼한 처마가 완만한 곡선을 이루다 네 귀퉁이에서 힘껏 치켜 올라갔고, 밑면에 3단의 받침을 두었다. 일부 탑재를 잃어버렸지만, 지붕돌의 양식으로 보아 고려시대에 세운 탑으로 보이며 현재 남아있는 탑의 총 높이는 214cm이다.

갑둔리오층석탑 역시 고려시대에 건립된 탑으로 ‘김부탑’이라고도 한다. 이 탑은 2층 기단 위에 5층의 탑신을 올리고 있는데, 탑신의 1·2·3층 몸돌과 5층 지붕돌은 탑을 복원할 때 새로 만들어 끼워 넣은 것이다. 아래층 기단에는 안상(眼象)을 조각하고 위층 기단에는 기둥모양과 글을 새겨 놓았다. 탑신의 각 층 지붕돌은 네 귀퉁이가 살짝 치켜 올라갔으며 밑면에 3단의 받침을 두었다. 위층 기단에 고려 정종 2년(1036)이란 기록이 있어 고려시대 석탑 및 불교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김부대왕각의 건립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마을 사람들이 이 비각을 ‘김부대왕각(金博大王閣)’이라 부르며 해마다 음력 5월 5일과 9월 9일에 마을 제사를 지내고 있다. 비각 내부에는 ‘신라경순왕태자김공일지신(新羅敬順王太子金公鎰之神)’이라는 위패가 모셔져 있다.

또한 『동경대전』 간행터 인근에는 동학 관련 사적으로 느릅정과 귀둔리(貴屯里)가 있고 홍천군 서석면에는 동학농민혁명군 전적지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느릅정은 최시형이 동학농민혁명 이후 1895년 1월 홍천을 거쳐 이곳에 이르러 1년간 피신해 있던 최영서(崔永瑞)의 집이 있던 곳이다. 최시형은 이해 12월까지 느릅정에 있다가 원주 치악산 기슭인 수레촌으로 이주하였는데, 느릅정은 현재 국도 44호선 변에 있는 인제 신남휴게소 부근이다.

귀둔리는 최제우의 큰아들 세정(世貞)이 은신해 지내다가 체포된 곳으로 『도원기서』에는 ‘세정이 기린(麒麟) 장춘보(張春甫)의 집에 있다가 뜻하지 않게 장졸(將卒)들이 집안으로 들이닥쳐 잡혀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최세정은 인제 옥에 갇혀있다가 양양 관아로 옮겨져 1872년 장살 당하였다.

인제 갑둔리는 『동경대전』 간행터로서의 역사문화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이지만 이외에도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의 장자 마의태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오는 곳이며, 고려시대의 석탑 2기가 역사의 의미를 더해 주는 곳이다. 또한 인제군과 경계가 맞닿아 있는 홍천군 서석에 동학농민혁명 전적지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동학농민혁명군 위령탑이 건립

되어 있어 동학의 사상과 혁명을 아울러 살필 수 있는 곳이다.

2. 간행터 정비 현황

인제 경진판 『동경대전』 간행터에 해당하는 각판소터와 공방터가 소재한 지역은 행정구역상으로 인제군 남면 갑둔리이다. 각판소터와 공방터가 위치한 지역은 원갑둔리로 불리던 지역으로 44번 국도에서 남면~상남간 446지방도를 통해 진입하여야 한다. 다물리 마을 동쪽으로 고개를 지나면 원갑둔리에 이르며, 원갑둔리 마을의 북서방향으로 소하천이 흐르고, 각판소터와 공방터가 소하천 좌우측으로 약 350m이격되어 위치하고 있다.

각판소터는 남면에서 상남 방향 446번 지방도인 김부대왕로 우측 편 언덕에 위치해 있으며, 출입구는 446번 지방도 변에 설치된 군사구역 출입구 차단봉을 통과한 후 좌측으로 약 100m 정도 올라가면 자리하고 있다.

공방터는 남면에서 상남 방향 44번 지방도 좌측 편 소하천 건너편에 위치하며, 현재는 군사 보호구역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으며, 군사용 도로와 연결해 있고, 군사용 도로보다 약간 낮은 위치에 있다.

『동경대전』 간행터는 두 곳으로 나누어 정비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경대전』을 간행하기 위한 업무 장소로 각판소를 설치하였던 김현수가 곧 갑둔리 375번지와, 경전 간행을 위한 공방 장소로 사용하던 갑둔리 351번지로 ‘각판소터’와 ‘공방터’란 명칭으로 정비하였다.

두 곳은 모두 육군과학화 전투훈련단 부지로 조성되면서 마을 주민들이 모두 이주 되어 오랫동안 방치되어 풀과 나무가 우거진 상태였다. 그리하여 관람객이 접근할 수 있도록 잡목을 제거하고 관람로 확보 및 정비, 수로 및 배수로 정비, 가시성 있는 도로 표지판과 안내판 등이 설치되었다.

『동경대전』 간행터에 대한 정비는 3단계로 추진할 계획인바 단계별

정비계획에 따르면 1단계 작업은 주변 수목 제거, 공방터 부근 파손 건축물 철거, 공방터 복토 및 평탄 작업, 각판소터 평탄 작업, 각판소터 전면부 수목제거, 배수로 정비, 유적지 및 진입로 목재 펜스 설치, 진입로 및 바닥면 부직포 설치, 임시주차장(가변주차장과 각판소터 앞 버스주차장) 설치, 주차장 부근 간이 편의시설 설치, 도로 안내판 설치이다.

2단계의 주요 작업은 각판소터와 공방터 앞 소하천 석축 실시, 임시주차장 정비, 도로 안내판 설치(44번 국도, 446번 지방도 진입부, 유적지 부근 3곳), 각판소터-공방터-주차장 조성지 까지 관광궤 동선에 목재 데크 설치(목재 교각 2개 포함) 등이 포함되어 있다.

3단계의 주요 작업은 주변 수목 제거(도로에서 조망권 확보), 주차장 및 편의시설 최종 정비, 각판소터와 공방터 유적지 내 기념 조형물 설치, 각판소와 공방터 안내설명판 최종 설치, 주차장 부지내에 종합 안내판 설치로 계획되어 있다.

현재까지 각판소터 271㎡에는 진입로 주변과 각판소터 주변의 수목을 제거한 뒤 목재 펜스를 설치하고 진입로에 자연석 바닥돌을 깔아 정비하였다. 그리고 각판소터 앞에는 ‘인제 『동경대전(東經大全)』 간행 각판소터’ 안내표지판과, ‘간행터 종합안내 지도’ 표지판이 세워져 있고, 도로에서 각판소터로 진입하는 입구에는 ‘동경대전 간행터 「각판소터」’라는 기둥 안내표지와 ‘각판소터’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공방터 655㎡에는 주변 수목 제거 후 평탄화 작업을 거쳐 건물터를 조성하고 목재 펜스를 설치하였다. 공방터 전면 좌측의 수로는 석축을 쌓아 정비하였고, 진입로 끝부분에 주차장을 조성하였다. 공방터 앞에는 ‘인제 『동경대전(東經大全)』 간행 공방터’ 안내표지판과, ‘간행터 종합안내 지도’ 표지판이 세워져 있고, 진입로 끝 부분 공방터 직전에 ‘동경대전 간행터 「공방터」’라는 기둥 안내표지가 설치되어 있다. 도로에서 공방터로 진입하는 입구에는 ‘인제 『동경대전(東經大全)』 간행터’ 안내표지판과, ‘『동경대전(東經大全)』 간행터 종합안내’ 표지판이 설치되

어 있어 동경대전 간행 공방터, 동경대전 간행 각판소터, 갑둔리 보호수(소나무), 최시형 피신처(성황거리)를 안내하고 있다.

『동경대전』 간행터는 현재 육군과학화 전투훈련단 훈련장 부지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식적인 관람은 인제군에 요청하여 국방부의 협조하에 공식적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III. 동경대전 간행터 활용 및 활성화 방안

1. 간행터 활용방안

1) 역사문화유산 탐방시설

(1) 천도교 성지

동학은 제2대 교주 최시형이 처형된 후 도통이 손병희에게 전수되었다. 손병희는 초기에 정치와 종교 간의 불가분리적 관계를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개혁적인 시도를 감행했으나 실패하고, 도리어 일제에 의해 억이용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정교분리의 원칙을 내걸고 1905년 교명을 천도교로 개칭, 새로운 교리와 체제를 확립하였다.¹¹⁾

곧 동학은 지금의 천도교로 이어져 천도교에서는 동학유적지인 수운대신사 최제우 유적지, 해월신사 최시형 유적지, 의암성사 손병희 유적지, 춘암상사 박인호 유적지, 동학혁명유적지, 3.1운동유적지를 성지로 지정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지역은 해월신사 유적지로 영월 직동, 영월 소밀원, 단양 장현곡(현 영월 김삿갓면 와석리), 인제 귀둔리와 양양관아, 정선 미천리, 정선 적조암, 정선 무은담, 인제 갑둔리, 고성 왕곡마을, 인제

11) 엄찬호, 2011, 「차기석계 동학농민혁명군의 활동과 이후 동향」, 『江原史學』 제24·25합집, 337~338쪽.

성황거리, 인제 느릅정, 치악산 수레촌, 원주 송골을 성지로 소개하고, 동학혁명유적지로 홍천 동학혁명위령탑을 성지로 소개하고 있다. 강원도 지역은 동학농민혁명유적지는 1곳뿐이지만 최시형 유적지는 14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천도교에서는 교계의 주요 행사나 교인 행사에 성지를 순례하는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인제 갑둔리는 천도교 경전의 첫 간행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이다. 그러므로 『동경대전』 간행터를 중심으로 최시형의 피신처와 홍천 동학농민혁명 위령탑을 연계하는 순례행선지는 천도교의 중요 성지 순례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역사문화 관광 답사지

최근 우리나라의 관광은 그 참여의 폭이 획기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광이 국민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생활의 질이 향상되고 잉여소득의 증대에 따라 여가문화를 누리는 계층이 점차 늘어나면서 관광객 숫자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며 정년 이후의 여가 활용방안으로 관광이 많은 사람의 요구사항이 되고 있다.

한편 생활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국민의식의 변화는 관광형태에도 변화를 가져와 단순히 먹고 즐기는 형태에서 다양한 체험 관광과 역사문화관광 심지어 다크투어리즘 등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역사문화관광은 지금과 다른 시대의 체험이면서 우리의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회이기도 하여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인제지역은 설악산을 비롯한 천혜의 자연자원과 백담사 등의 역사문화원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많은 사람이 찾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관광지이다. 현재는 설악산을 중심으로 한 자연환경이 관광객 유치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인제 관광에서 주목을 받는 것은 설악산을 중심으로 한 등산, 자연휴양림 등의 산림관광, 내린천을 중심으로 한 레프팅, 오토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한 레저스포츠가 인제 관광에서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빙어축제, 황태축제, 합강문화제, 만해축전 등의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관광객 유치의 기반이 되고 있으며, 마을을 중심으로 한 생태체험활동 등이 인제의 매력을 더욱 풍성히 만들고 있다.¹²⁾

여기에 한국근대의 사회변혁 사상이었던 동학의 경전이 간행된 갑둔리의 『동경대전』 간행터와 신라말 비운의 태자 이야기가 담겨있는 김부대왕각, 갑둔리 삼층석탑과 오층석탑은 또 다른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할 것이며 인제 역사문화관광의 한 축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또한 육군과학화 전투훈련단의 훈련시설을 연계한 체험 관광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교육시설로서의 활용

(1) 각급 학교 한국근현대사 및 지역사 교육

각 지역의 역사는 발생하는 배경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게 된다. 따라서 지역사는 어떠한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다르게 보이게 되어있으며, 이를 조명하고 의미를 부여함에 따라 본연의 가치가 되살아 날 수도 있다. 지역사 정리의 노력은 바로 이 같은 지역적 특성을 규명하고 종합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우선 주목되어야 할 것이 바로 ‘지역사 교육’이다. 물론 교과부에서도 이점에 착안하여 ‘지역화 교육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교육과정에 이를 접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역의 특수성을 보완하고, 학교 교육이 현장의 자율성·창의성을 살려야 한다는 당위성은 이미 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계속 강조됐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과정의 제정과 교과용 도서의 편찬 권한을 교과부가

12) 인제군, 2018, 『동경대전 간행터 문화재 활용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9쪽.

가지고 있는 중앙 집중식 교육과정 체제 아래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지역사’의 의미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교육 여건상 자율적인 노력으로 ‘주어지는 교육과정’의 틀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사회과 교육의 목표는 사회 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생활 주변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사회 현상과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끌게 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을 갖고, 나아가 사회과 교육의 궁극적 목표인 민주 시민의 기본적인 자질을 육성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는 인구의 도시 집중과 이농현상에 따라 도·농간에 문화 격차가 커지면서 향토애는 날로 약화하여 가고 있으며, 보편화와 세계화의 구호속에 지역 고유의 풍습과 전통적인 지역 문화는 무시되거나 소외되고 있다. 따라서 자라나는 2세들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과 긍지를 가지게 하려면 지역 교과서를 통한 교육은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지역화로 재구성된 자료를 가지고 학습하게 됨으로써 얻어진 경험과 지역에 대한 이해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게 하여 자기 고장을 자랑하는 의식을 싹트게 할 것이고, 그것은 곧 향토발전의 가장 큰 정신적 밑거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의식을 가진 동질성 있는 학생들을 길러내는 것이 지역화 교육의 본질이자 궁극적인 목표이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적이 아닌 공동체적인 것이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지역화 학습은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역사적 기억의 장소에서 진행되는 교육 활동의 목표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 첫째는 역사지식의 가르침이다. 둘째는 역사 속으로의 여행 체험이다. 역사문화유산 내의 모든 흔적은 과거의 기억들을 담고 있으므로 이곳에서의 학습은 잊혀졌던 사실들을 생생한 현재로 전환한다. 셋째는 역사적 장소의 의미를 이해하게 해주는 것이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변화된 공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¹³⁾

(2) 지역민의 지역사 학습

오늘 우리 사회는 그동안 자본주의의 기형적 발전, 장기간의 군부독재정권에 따른 파행적 정치운영, 지역에 기반을 둔 정치세력의 형성 등으로 말미암아 지역 문제가 사회적 갈등 요인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경제의 불균형 발전, 지역의식의 심화, 지역 간 갈등, 지역패권주의 등은 지역 문제의 구체적 표현들이다. 근래에 역사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지역 문제를 역사적 접근방법을 통해 진단하고 해결해보려는 노력의 하나일 것이다. 더욱이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국가와 국가 간의 교섭이 점차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도 역사사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 여기에 삶의 터전인 자신의 고향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이 더하여지면서 역사사에 대해 기대하게 되었다.

지역사회는 그 영역에의 소속감과 공동의식을 갖고 활동하는 인간집단이라는 점에서 일정하게 지역에 대한 일체감과 지역의식을 만들어내며, 이것이 지역 이데올로기화하는 예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반드시 차별성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의 역사적 경험과 민의 삶의 방식에 따라 독특한 문화를 지니기도 한다.

지역사는 지역민들의 삶의 결과물이고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은 지역민들의 삶의 흔적인 것이다.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이 지역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지역민은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에 무관심하거나 모르고 있다. 지역의 정체성 확립은 지역민들의 공동참여의식에서 발현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지역민들

13) 최호근, 2013, 「기념시설을 활용한 역사교육: 독일의 경험에 대한 검토」, 『역사와 담론』 66, 413~419쪽.

의 관심을 끌어내고 공동 관리 보존의식을 형성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각 시군은 지역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무수한 고민과 자본을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정체성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 지역민들이 함께 느끼고 누렸던 일들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 정체성은 상당 부분 지역에 남겨진 역사 사적지를 중심으로 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면에서 지역축제는 문화공동체로서의 지역민들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지역문화를 교육하고 홍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축제는 역사적 필요성에 의하여 생성되어 오랜 전통과 사회문화적 의미를 간직하고 있으며, 사회 변화과정 속에서 변천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오늘날 우리가 대하는 대부분의 지역축제는 올바른 전통을 바탕으로 형성되기보다는 지역홍보, 지역경제의 활성화 문제, 관광자원화 문제 등이 복합·추가된 기형적인 모습을 보인다.

지역축제는 지역공동체의 일체감을 증폭시키고 적극적으로 재결집시키는 요소를 지녀야 한다. 예컨대 지역 정서가 담겨있어야 하고, 지역민 전체가 참여해야 하며, 지역의 역사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지역의 고유하고 독특한 문화행사가 뒷받침된 축제여야 한다. 지역민 모두가 그 지역 고유의 향토성과 정체성을 느끼고 스스로 참여하여 소속감을 확인하고 신명을 되찾을 수 있을 때만 지역축제는 비소로 과거·현재와 미래로 연결되는 생명력을 지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제지역의 축제에 지역민이 축제의 주체자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축제는 지역축제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인제 갑둔리의 『동경대전』 간행터를 통해서도 간행터가 인제에 있는 의미를 주지시킴으로써 우리나라 근대의 변혁을 이끌었던 핵심사상의 출발점이 이곳이라는 점을 부각해 지역민이 스스로 자긍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문화콘텐츠로서의 활용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은 지역 문화콘텐츠의 기본자료가 된다.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문화·예술·학술적 내용의 창작물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여 재생산된 모든 가공물 그리고 창작물의 수집, 가공을 통해서 상품화된 결과물들을 창출할 수 있다. 지역의 문화콘텐츠는 지역 역사문화자원의 특수성을 소재로 하여 지역브랜드화함으로써 21세기적 지역 문화로 환원시킨다는 의미도 내포한다.

『동경대전』 간행터와 관련해서도 인제에 동학이 전해지는 과정, 최시형의 피난 생활, 최세정의 피체 사건, 『동경대전』 간행 과정, 간행된 초간본 『동경대전』 그 자체도 문화콘텐츠의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요소를 토대로 영화·드라마·다큐멘터리 등을 포함한 방송콘텐츠나 만화·웹툰·애니메이션·캐릭터 등 문화원형을 이용한 콘텐츠, 뮤지컬·오페라·연극 등의 공연콘텐츠, 전시기획, 테마파크, 축제 등의 공간콘텐츠로 활용하여 지역의 문화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인제나 강원도로 확대하여 동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발굴하거나 구전 설화의 수집, 동학 관련 지명 정리, 동학농민혁명 참여 후손 구술 채록, 대일항쟁기 인제지역에서 활동했던 천도교청우당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화 함으로써 인제의 동학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할 필요도 있다.

2. 간행터 기념시설 활성화 방안

1) 경전 간행터에 대한 홍보

유적지의 홍보가 중요하다. 아무리 유적지의 의미가 있고 잘 조성하였다고 하여도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방문객을 유치하기 어렵다. 다양한 홍보전략을 통하여 지명도를 고양하고 차별성을 널리 알리며, 방문객의 지지를 호소해야 한다. 지역사회는 유적지를 조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적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행사를 기획함으로써 지역

주민을 참여시켜 관심을 고하고 외지인에게 홍보의 기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홍보는 군이나 문화원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리는 것이다. 인제군의 경우 군청 홈페이지에 지정문화유산에 대해서만 국가유산 포털을 링크하여 알리고 있을 뿐이다. 물론 국가유산 포털을 통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지만, 지역의 관련 이야기나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작금의 시대는 스토리텔링이 여행의 중심을 이룬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역의 문화유산은 지역과의 관련성을 가질 때 지역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방문객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국가유산 포털은 지정국가유산만 소개하고 있어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지는 문화유산을 소개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인제군 문화관광 홈페이지는 여타의 볼거리나 즐길 거리, 먹거리 등에 대해서는 시각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보다 나은 자료를 보여주나 문화유산 부분은 소략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의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역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자세히 소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오프라인에서만 존재하는 문화유산이 아니라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결합으로 지리적 한계를 넘어 세계 각지에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앞으로의 온라인은 현장에 가지 않고도 직접 가보는 것과 같은 가상현실의 세계를 추구하고 있다. 물론 관광객의 유치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역효과의 소지가 있지만, 문화유산을 홍보하고 정신을 계승한다는 측면에서는 더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도 있다. 또 오프라인상에서 보여줄 수 없었던 다양한 정보와 체험을 온라인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찾아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요즘은 이동전화 시대이다. 문화유산도 모바일 앱을 통해 홍보하면 다양한 세대에게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홍보는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을 외부에 알리는 일일 뿐 아니라 지역민에게도 알려 지역민의 지역에 대한 향토애도 향상할 수 있다.

지역민이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형성되어야 지역의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의 문화정체성으로 연결되어 지역 고유의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2) 학생들 수업부교재 확보

지역사 교육은 입시 위주의 수업과 중앙 중심적인 교육과정에서 학생에게 제공할 수 없는 역사교육 내용을 제공한다. 즉, 학생이 주변의 친숙한 역사적 소재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체험하게 함으로써 역사 학습에 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고력을 기르고 문화적 자긍심을 심어준다. 또한 지역사 교육은 자기 고장의 사람들이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왔는가를 이해함으로써 현재의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찾으려는 자세를 기를 수 있게 한다. 때문에 지역사 교육에서는 사료학습, 현장체험학습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¹⁴⁾

우리나라에서 지역사 교육이 교육과정을 통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1989년 ‘지역성을 강조’한 제5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부터였다. 이 교육과정은 모든 목표와 내용의 지역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초등학교 3학년의 경우 많은 도와 시·군이 교육부가 편찬한 교과서 외에 인정교과서로서 지역 교과서를 편찬하였다. 또한 4학년의 경우 1학기의 한 단원을 ‘우리 시·도의 생활’로 설정하여 『사회』 및 『사회과 탐구』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시·도 별로 다르게 편찬하였다.

그러나 전 교과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의 지역화가 이루어진 것은 1995년 시행된 제6차 교육과정부터였다. 지방자치제의 시행과 궤를 같이한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부가 고시한 교육과정을 국가 수준의

14) 신주백, 2004, 「지방사 연구방법, 실제, 역사교육」, 『한국근현대사연구』 28, 173쪽.

교육과정으로 규정하고 아울러 교육과정의 수준과 위상을 교육부에서 고시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시도 교육청에서 정하는 ‘시·도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그리고 학교 수준에서 편성 운영하는 ‘학교 교육과정’의 3단계로 위계화함으로써 국가 수준의 일반적·공통적·기본적인 교육과정이 각 지역, 각 학교에서 구체화·다양화되도록 지역 학교의 권한과 재량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1학년의 『우리들은 1학년』과 4학년 1학기의 『도·광역시 생활』은 각 도·광역시 교육청에서 개발하여 만들고 3학년의 『시·군 생활』은 각 시·군 교육청에서 만들어 사용하였다. 말하자면 3·4학년의 사회과목의 경우 전국 공용의 『사회』 교과서와 각 지방교육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사회과 탐구』(지역교과서)를 같이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나 약간의 변화는 있었다. 제7차 교육과정은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에 기본방향을 두고 ‘지역 및 학교 교육 과정 편성·육성의 자율성 확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¹⁵⁾ 즉,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지역사회 교육도 초·중·고교에서 학년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놓았다. 또한 초등학교의 경우 『사회』 교과서와 함께 부교재를 발행하여 두 활동의 내용을 채우고 있는데, 나의 고장(군·구) 수준의 『사회과 탐구』(3) → 시·도 수준의 『사회과 탐구』(4) → 국가의 자연지리·인문지리·환경·경제·문화를 서술한 『사회과 탐구』(5) → 한국의 역사와 정치, 세계와의 관계 등을 탐구하는 활동을 도와주는 『사회과 탐구』(6)가 부교재로 편찬되어 있다.

이 가운데 자기 지역의 역사와 지리, 문화를 알 수 있는 부교재가

15) 교육부, 2001, 『교육과정자료 29-제7차 교육과정의 개요』, 17쪽.

3·4학년의 『사회과 탐구』다. 그래서 이들 교과서는 해당 교육청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5·6학년 『사회과 탐구』 교과서는 국정으로 발행되고 있다. 또한 현장체험학습 차원에서 다양한 수업 교재가 발행되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 『국사』 교과서의 제10단원 마지막에서 ‘단원 종합 수행 과제’의 목적으로 ‘우리 고장의 역사 알아보기’가 있다. 하지만 제7차 교육과정에서 재량활동을 ‘신설’했음에도 교과서의 편집은 거의 요식행위와 같이 이루어졌다. 인생을 좌우하는 입시가 걸려 있는 고등학교의 『국사』 교과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이 발행한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1·2(휴머니스트, 2002)도 마찬가지다. 이미 정해진 교육과정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교육과정을 지역화하는 현재의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에 국가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거의 끼워넣기식으로 지역사교육을 해야 한다. 따라서 중등교육과정에서 지역사회교육의 양과 질은 사실상 교사의 관심과 수업준비정도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¹⁶⁾

따라서 지역사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문연구자들에 의한 지역사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고 역사교사·향토사학자와의 연대와 공동 작업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역사 교재는 문화유산 중심의 서술, 향토지와 같은 사실 나열의 서술이나 향토애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서술은 지양하고, 그 지역민을 주체로 그 지역만의 독특한 이미지나 문화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용·교사용 나아가 지역민을 위한 그리고 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교재가 만들어지고, 지역사 서술도 이제는 종이에만 국한되지 않고 시청각교재, 답사 심지어는 지역행사와 축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구현되어야 한다. 단순히 보는 역사에서 벗어나 느끼고 참여하는 역사로 나아가야 한다.

16) 신주백, 2004, 「지방사 연구방법, 실제, 역사교육」, 『한국근현대사연구』 28, 174쪽.

3) 『동경대전』 간행 기념사업 추진

인제 갑둔리에서의 『동경대전』 초간본 간행은 여러 차례 언급하였지만, 천도교 경전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한국 근대사의 전환점을 이룬 동학사상의 체계화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경전 간행을 기념하는 기념사업을 계획하여 주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필요하다.

기념사업은 『동경대전』 간행의 의미를 오래도록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기 위한 사업이다. 기념사업에는 기념식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민이 함께 어우러지고 동학의 새로운 세상을 향한 꿈을 이해하는 장이 필요하다.

우선 인제지역 동학유적지와 흥천의 동학농민혁명 위령탑, 고성 왕곡 마을을 연계하는 역사문화 답사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의 학생들을 비롯한 지역민에게 주기적으로 소개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역사문화유산 답사는 계획된 프로그램 때문에 운영되지 않으면 개인이나 단체를 통해서도 대체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더구나 아직 생소한 유적지는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기 쉽다. 유적지는 사람들이 찾지 않으면 관리가 소홀해지고 방치되어 시설이 쇠락해져 더욱 발길이 끊어지는 일이 반복된다. 그러므로 자주 찾아가는 프로그램의 개발은 중요하다.

그 외 『동경대전』을 학생 또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 편찬한 소책자의 발행도 필요하고, 『동경대전』 간행을 알리기 위한 주기적인 학술대회도 필요해 보인다. 또 『동경대전』 간행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념시설물 설치와 기념품 개발, 체험행사 개발도 기념사업으로 추진되면 바람직할 것이다.

4) 동학유적지 정비

유적지는 기본적으로 역사적 의미가 담긴 건조물이나 무덤, 또는 역

사적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로 의미 계승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지적 문화적 공간이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유적은 유적의 역사적 의미나 규모, 공간구성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활용되어져 왔다. 하지만 오늘날의 유적지의 역할은 공급자의 역할에서 이용자의 경험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적지도 관람 답사자와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그들의 문화적 수요와 필요에 근거하여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의 요구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적지는 방문자가 역사적 현장과 만남을 통해 상상과 경이감을 촉진하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체험과 공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각 유적지만의 고유하고 특별한 활동과 경험을 제공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¹⁷⁾

현재 강원도 내에서 동학 관련 사적지 중 기념시설로 지정된 곳은 극히 소수이다. 물론 천도교의 성지로 알려진 곳은 해월 최시형 관련 유적지가 14곳, 동학혁명 관련 유적지가 1곳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중 국자유산으로 지정된 곳은 2곳뿐이다. 동학에서 강원도의 위상으로 볼 때 강원도의 유적지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됐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동학유적지 전반에 대해 정밀한 조사작업을 하고 유적지 정비를 통하여 관람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문화유산 안내표지판의 정비가 우선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지역의 문화유산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좀 더 많이 자세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물론 요즘은 네비게이션에 의존하여 현장을 찾아오기도 하지만 목적지로 향하는 도중에도 문화유산 안내표지판을 따라 방문하는 관광객도 있다. 지역의 문화유산은 지정 문화유산이든 비지정 문화유산이든 모두 안내표지의 설치가 필요하다. 지역의 정체성을 알리는 일은 자연경관이나 특정 먹거리보다 지역의 뿌리를 알려주는 문화유산

17) 장소연, 2007, 「고려대학교 박물관의 현황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3~95쪽.

일 것이다. 그러므로 외지 방문객들에게 지역의 정체성을 소개하는 일은 이러한 문화유산이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

『동경대전』 간행터 일원은 궁극적으로는 기념공원이 조성되고 『동경대전』 기념관이 설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전국적으로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여러 곳에 조성되어 있지만 여타의 동학 관련 기념관은 수운 최제우를 조명한 경주의 동학기념관이 유일하다. 차제에 한국의 근대 사상을 대표하는 동학사상을 종합적으로 조명하고 동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기념관 조성이 필요해 보인다.

맺음말

이상에서 1880년 최초로 인제 갑둔리에서 간행된 동학의 경전인 『동경대전』 간행터 기념시설의 활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간행터 활용방안으로서는 첫째, 역사문화유산 탐방시설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동경대전』 간행터를 중심으로 최시형의 피신처와 흥천 동학농민혁명 위령탑을 연계하는 순례행선지는 천도교의 중요 성지 순례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한국근대의 사회변혁 사상이었던 동학의 경전이 간행된 갑둔리의 『동경대전』 간행터는 인제 역사문화관광의 한 축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둘째, 교육시설로서의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전 간행터는 학생들의 지역사 교육 장소로 활용됨으로써 얻어진 경험과 지역에 대한 이해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게 하여 자기 고장을 자랑하는 의식을 싹트게 할 것이고, 그것은 곧 향토발전의 가장 큰 정신적 밑거름이 될 것이다. 또한 경전 간행터는 지역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모르고 있거나 무관심한 지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공동 관리 보존의식을 형성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지역 문화콘텐츠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동경대전』 간행

사실을 기반으로 문화·예술·학술적 내용의 창작물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여 재생산된 모든 가공물 그리고 창작물의 수집, 가공을 통해서 상품화된 결과물들을 창출할 수 있다.

다음 간행터 기념시설 활성화 방안으로는 첫째, 경전 간행터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홍보는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을 외부에 알리는 일일 뿐 아니라 지역민에게도 알려 지역민의 지역에 대한 향토애도 향상할 수 있다. 지역민이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형성되어야 지역의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의 문화 정체성으로 연결되어 지역 고유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생들 수업부교재 확보가 필요하다. 학생용·교사용 나아가 지역민을 위한 그리고 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교재에 『동경대전』 간행터를 포함한 지역 역사문화유산이 소개되어야 학생들을 비롯한 지역민들에게 간행터가 널리알려져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동경대전』 간행 기념사업 추진이 추진되어야 한다. 인제 갑둔리에서의 『동경대전』 초간본 간행은 천도교 경전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한국근대사의 전환점을 이룬 동학사상의 체계화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경전 간행을 기념하는 기념사업 계획하여 주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필요하다.

넷째, 동학유적지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경전 간행터를 제외한 대부분의 동학유적지는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문화유산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유적지 정비를 통하여 관람객을 유치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투고일 : 2024. 10. 1. 심사완료일 : 2024. 11. 7. 게재확정일 : 2024. 11. 15.

참고문헌

<자료>

『東經大全』

『崔先生文集道源記書』

<단행본>

尹錫山, 1996, 『東經大全』, 동학사.

<논문>

- 김정수, 2004,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관광자원화 방안 연구」, 『문화관광연구』 6-1, 한국문화관광학회, 75~96쪽.
- 박맹수, 1988, 「『東經大全』에 대한 基礎的 研究-『東經大全』研究成果를 中心으로-」, 『정신문화연구』 34, 한국학중앙연구원, 237~257쪽.
- 박세준, 2018, 「수운 최제우의 근대성」, 『한국학논집』 73,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03~128쪽.
- 박인규, 2021, 「규장각 소장본 『東學書』 분석 -자료의 성격에 따른 분류를 통해-」, 『奎章閣』 5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47~286쪽.
- 裴賢淑, 2024, 「東學教 經典의 刊行과 書誌의 特徵 -『東經大全』原文의 校勘을 中心으로-」, 『한국학논집』 94,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75~313쪽.
- 성주현, 2015, 「강원도의 동학 조직과 동경대전」, 『역사와교육』 20, 동국대학교 역사교과서연구소, 253~274쪽.
- 손계영, 2022, 「1880년대 간행 『東經大全』 판본 연구」, 『書誌學研究』 91, 한국서지학회, 171~202쪽.
- 신주백, 2004, 「지방사 연구방법, 실제, 역사교육」, 『한국근현대사연구』 28, 한국근현대사학회, 143~180쪽.
- 안창범, 2001, 「『동경대전』의 역사적 연구」, 『동학학보』 2, 동학학회, 7~32쪽.
- 엄찬호, 2011, 「차기석계 동학농민혁명군의 활동과 이후 동향」, 『江原史學』 제24·25합집, 강원사학회, 319~342쪽.
- 염정섭, 2019, 「1880년 인제판 동경대전 편찬·간행의 재고찰」, 『건지인문학』 25,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75~228쪽.
- 원도연, 2007,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사회성과 기념공간 연구」, 『지방사와 지방문화』 10-1, 역사문화학회, 261~288쪽.
- 윤석산, 2010, 「새로 발견된 목판본 『동경대전』에 관하여」, 『동학학보』 20, 동학학회,

201~230쪽.

이호영, 2007, 「동경대전의 正經과 문헌비평」, 『동학학보』 13, 동학학회, 209~226쪽.

임호민, 2017, 「崔時亨의 동학재건 활동과 교권장악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20-1, 역사문화학회, 193~213쪽.

정재호, 2001, 「동학경전과 동학가사 연구」, 『東學研究』 8, 한국동학학회, 19~75쪽.

韓勝奉, 2011, 「江原道 麟蹄 地域 崔時亨의 行蹟과 東學 記念物」,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bstract〉

Utilization and Revitalization of Memorial Facilities in the Place of Publication of DongKyeongDaejeon

Eom Chanhoo*

Donghak is the spirit of our people, which is a turning point in modern Korean history. We must constantly think about how to implement and inherit this spirit today, and successfully complete the Shenyang project containing these concern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trategically develop related historical sites so that the spirit is not damaged.

The historical fact of publishing DongKyeongDaejeon in Gapdun-ri, Inje-gun, Gangwon-do laid the foundation for Donghak to be established as a church at the time. In addition, it was a very important event in a part of Korean modern history. Therefore, I would like to find a way to utilize the historically and culturally meaningful and important DongKyeongDaejeon publication.

As a way to utilize the publication site, first, it can be used as a facility for exploration of historical and cultural sites. Second, it could be used as an educational facility. Third, it can be used as local cultural content. Next, as a way to revitalize the memorial facilities of the place of publication, first,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place of publication of the scriptures. Second, it is necessary to secure additional teaching

* Kangwon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materials for students. Third, the promotion of a commemorative project for the publication of DongKyeongDaejeon should be promoted. Fourth, the Donghak site needs to be renovated.

Key word : Donghak, DongKyeongDaejeon, Choi Sihyoung, Inje-gun, Gabdun-ri

